

에너지보존

전력산업 민영화여건 검토를 위한 세미나 개최

민영화를 위한 전력산업 사업여건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와 전력산업 연구회(회장. 서울대 이승훈교수)는 2003. 6. 27(금) 15:30 인터콘티넨탈호텔 로즈룸에서 “민영화를 위한 전력산업 사업여건 검토”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남동발전(주) 경영권 매각 잠정중단이후 향후 성공적인 민영화를 위해 지속적인 대외 신뢰를 구축하고, 그간 추진해온 발전회사 민영화 시책에 대한 평가와 국내외 투자여건 검토 등을 통해 바람직한 민영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개최하는 것.

또한 이번 세미나에는 유럽 에너지 업체인 Tractebel의 한국지사장 Jean-Luk Kebers가 “전력산업 민영화 현황 및 전망”, 서울대 이승훈교수가 “발전 민영화 방향”, 한국경제연구원 조성봉 박사가 “도매경쟁시장의 상업용 가스 발전소의 경제성” 등의 주제로 발표를 했으며, 관련기업, 국내외 투자자, 학계, 연구기관 등에서 150여명이 참석했다.

전기위원회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향후 발전회사 민영화 시책의 효과적 인 추진방안을 점검하여 발전회사의

성공적인 매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

여름철 전력수급대책회의 개최

한전, 발전사, 공단 등 현황 발표

산업자원부는 7~8월중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전력수급 대책의 준비사항을 최종 점검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 차관 주재로 '03. 6. 28(토), 11시부터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동 회의에서는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전체적인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에 대하여 발표했으며, 한국전력공사, 6개 발전회사, 에너지관리공단, 전기안전공사 등이 준비한 사항에 대하여 발표했다.

여름철 전력수급에 대비하여 기관별 로 발표할 내용을 보면

- 한전은 전력수요관리 추진계획 및 송변전설비의 운용 계획
- 6개 발전회사는 발전설비의 운용 계획 및 고장방지대책
- 에너지관리공단은 전기소비절약 홍보
- 전기안전공사는 민간의 비상발전기 운전 지원 등이다.

第10회 가스安全促進大會 開催

가스관련 인사 54명, 11개 업체 훈·포장

전국 가스산업인의 가스안전에 대한 결의를 다지고 가스안전의식 확산과 가스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제10회 가스안전축전대회』가 6월 26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치사를 통하여 수상자들의 평소 가스안전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였고, 가스사고 예방은 가스시설에 필요한 각종 제품의 안전성과 직결됨을 강조하면서 제품의 품질 또한 향상시켜 줄 것을 주문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최고 영예인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한 승일제관 현창수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500여명의 가스산업종사자들이 참석, 가스안전의식의 확산과 가스안전문화 정착을 통한 가스사고의 예방에 주력할 것을 결의하였다.

동 행사에서 가스안전관리에 공로가 많은 54명의 가스관련 인사와 11개업체가 훈·포장 및 대통령·국무총리·산업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는데,

- 동탑산업훈장은 현창수(玄昌洙) 승일제관(주)대표, 철탑산업훈장은 배경운(裴慶雲) 서울시가스(주)회장, 산업포장은 유양기술(주) 김찬주(金贊株)대표, 한일산업가스(주) 홍순철(洪淳哲)대표, (주)MS가스 전원태(田園泰)대표가 수상하였고, 단체표창 중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표창은 (주)코베아에게 돌아갔다.

2003년도 에너지절약 자발적 협약 체결

에너지 다소비 30개 업체와 정부가 자발적협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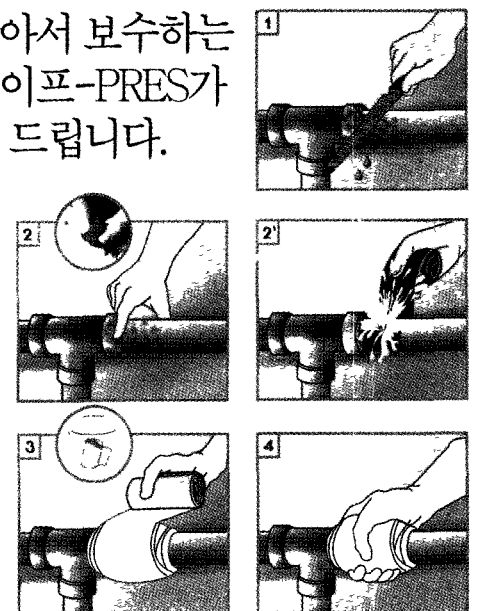
金七斗 산업자원부차관은 6월 2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현대오일뱅크(주) 대표 서영태사장 등 30개 기업 대표와 에너지효율 향상 및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한 2003년도 에너지절약 「자 발 적 협 약」(VA: Voluntary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금번 협약을 체결한 30개 업체는 2003년부터 5년간 총 877억원을 투자하여 투자완료후 매년 자체 에너지사용량의 약 7%인 250천 석유환산톤(ton)의 에너지를 절약(절감액 451억원/년)할 계획이다.

이로써 '98년 포항제철(주) 등 15개 사업장과 협약을 체결한 이후 총 565

사고 있는 배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간편하게 감아서 보수하는 배관보수 테이프-PRES가 쉽게 해결해 드립니다.



- 사용방법**
- 1 벨트를 잡고 오염물질을 제거 후 샌드페이퍼나 브러쉬 등으로 거칠기 작업을 한다
 - 2 압력을 제거할수 있으면 스틱형 보수제를 부착하여 누설부위를 막는다. 압력이 제거 안되면 생고무 물줄 누설지점에 감아준다.
 - 3 보수테이프를 물에 3-5초간 활성화 시킨후 감아준다
 - 4 다 감은 후 장갑을 벗고 손에 물을 묻혀 표면을 매끄럽게 해준다

- 스티킹 보수제** 손으로 반죽하여 매꾸고 붙여 주는 PSI 사의 총 9종의 스틱형 보수제
다목적용 / 스티용 / 알루미늄용 / 비철금속용 / 플라스틱용 / 콘크리트용 / 나무용 / 수중용 / 고온용
- 반죽형 보수제** 주걱으로 원하는 양만큼 주체의 경화제를 반죽하여 사용하는 보수제
STEEL / ALUMINUM / STAINLESS / BRONZE / TITANIUM / CERAMIC / WEAR RESISTANCE(내마모성)
- 수처리 케미칼** 보일러 및 냉각라인의 청관제, 세관제 / 핀코일 세척제 / 바닥 및 설비 세척제 등

에너지

개 사업장이 자발적협약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5년간 총 3조895억원을 투자하여 투자완료후 연간 1조617억원의 에너지를 절약할 예정이다.

금번 협약으로, 연간 에너지사용량 5,000 toe이상 총872개 업체중 64.8%인 565업체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연간 30,000 toe이상인 업체는 전체 277개업체중 92.4%인 256개 업체가 협약을 체결했다.

금번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들은 『선협약』방식에 따라 3개월이내에 에너지사용의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담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 이행계획에 따라 5년간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시설 개체 투자를 하게 된다.

금년에는 125개사(금번 30개사를 포함)와 자발적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이렇게 되면 금년 말까지 총 660개사(연간 5,000toe이상 에너지를 사용하는 872개 업체의 75.7%)와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정부는 '98년이후 2002년 말까지 110개 사업장에 1,727억원의 자금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이 자금은 이자율 3.5%(변동금리)로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다.

자발적 협약사업은 지난 92년 이후 네델란드를 비롯한 유럽선진국들이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활발하게 추진해오고 있는 제도로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을 중점 육성하면서 기존의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에 대하여는 자발적협약 시설 등을 통해 에너지절약형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하여 국가적으로는 에너지절약 및 외화절감을, 기업에게는 원가절감 및 기업경쟁력 제고를, 국제적으로는 기후변화협약에의 대응은 물론 지구환경보존에도 기여하게 되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원부국 몽골과의 에너지 및 광물자원분야 협력 확대

제3차 한-몽 자원협력위원회 개최

한국과 몽골 정부는 양국간 자원협력 확대를 위한 제3차 한-몽자원협력위원회를 6.25(수)일 서울에서 김기호 산업자원부 자원정책국장장과 간바타(D. Ganbaatar) 몽골 상공부 지질광물자원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 대표단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하여, 양국간 에너지·광물자원분야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 한국측(27명)·산자부, 광진, 지자체, 여경연 등 9개기관 및 6개민간사
몽골측(14명) : 상공부, 기간산업부, 광물청, 석유청, 에너지청 등 7개기관

몽골은 세계의 10대 자원부국으로 동, 금 및 형석 등이 풍부한 국가이나 전 국토에 대한 정밀탐사가 미진하여 지속적인 탐사가 이루어질 경우 에너지 및 광물자원잠재력이 매우 큰 국가이다.

※ '01년 캐나다 광업회사 아이반호(Ivanhoe)사가 몽골 남고비 시막지역에서 대규모 금·동광산인 토퀴스힐(Turquoise Hill)을 발견함으로써 세계 광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 주요 자원부국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사항은 양국간 에너지·광물자원분야 민간기업 협력 강화의 차원에서

아국 민간기업이 추진중인 금, 인광 등 개발사업에 대한 몽골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활성화 될 전망이다. 아국기업의 몽골의 광업분야 진출은 금, 인광석 등 9개사업으로 현재 본격적인 생산을 실시하는 광산은 없으나, 현재 시험생산중인 사금과 인광석은 금년부터 본격 생산 예정이다.

산자부, 세계 최대규모 LFG(매립가스) 발전사업허가

연간 260억원 이상의 수입 창출, 환경오염 개선 효과 예상

산업자원부는 에코에너지(주)(대표·배종호)의 수도권매립지(인천 백석동) 매립가스(Land Fill Gas) 발전소(설비용량 5만kW) 발전사업 허가신청에 대해 전기위원회(6.23)의 심의를 거쳐 이를 허가했다.

수도권매립지로부터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연료로 함으로써 연간 약 260억원 이상의 전력판매수입효과 창출 및 매립지주변 환경오염 개선효과가 예상되는 등 LFG발전소는 '05. 11월부터 본격적인 상업운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금년 10월 착공하여 '05. 10월 준공 예정인 동 사업에 에코에너지(주)는 총 949억원을 투입하게 되며 LFG발전소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동 발전소는 연간 40만MWh이상(약 10만 가구 전력 사용량)의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전력수급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번 수도권 매립지 발전사업은 B.T.O 방식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에코에너지(주)가 건설후 11년 동안 운영한 후 정부에 넘기는 계획임(B.T.O: Build Transfer Operate, 건설 양도 운영)

산업자원부는 에너지 다원화를 통한

안정적 전력공급과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화석연료절감을 위하여 LFG(매립가스)발전,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등 대체에너지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난 지난해 5월에 대체에너지로 생산되는 전력의 기준가격을 현행 전력시장 전력판매단가('02년 평균판매단가는 47.23원/kWh)보다 높게 책정, 공고한바 있으며(LFG의 경우는 61.80원/kWh) 그 차액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할 계획이다.

기술표준원 태양 에너지 개발 보급에 획기적 계기 마련

국제기준에 적합한 규격의 대폭 제정으로 대체에너지 기반조성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 윤교원)은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2002.9.26) 과 동법 시행규칙의 제정(2003.1.3)으로 대체에너지 개발이 본격화 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6월중에 『태양열 이용 기술 관련 KS규격』을 대폭 제정 고시한다.

이번에 제정되는 대다수의 KS규격은 태양 에너지 복사 측정장치의 시방서와 분류, 태양열 급수난방기 및 축열기 연결파이프, 또 그 부속에 대한 탄성재료의 평가방법 등 총 14종의 규격을 신규로 제정하고 기존규격 6종중 주택용 태양열 이용 온수기등 2종의 기존 KS규격은 국제수준으로 개정하여 고시한다.

기술표준원은 지금까지 태양열 관련 KS 규격은 모두 6종에 불과해 관련제품의 개발은 물론 태양열 설비의 성능 검증에도 크게 미흡하여 대체에너지 설비 인증이 본격화 되는 금년 말까지 기존의 KS규격을 국제기준에 적합하도록 제·개정함으로써 그간 국산설비의 신뢰성부족으로 사용을 기피했던 국산 태양열 기기의 수요를 확대하여 연간 3000억원 규모의 국내 태양 에너지 기기보급에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며 해외시장(규모 40억불)에 대한 국산 대체 에너지 설비의 수출 기반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

원전수거물 관리센터 유치논의 본격화

지역별 순회설명회 등 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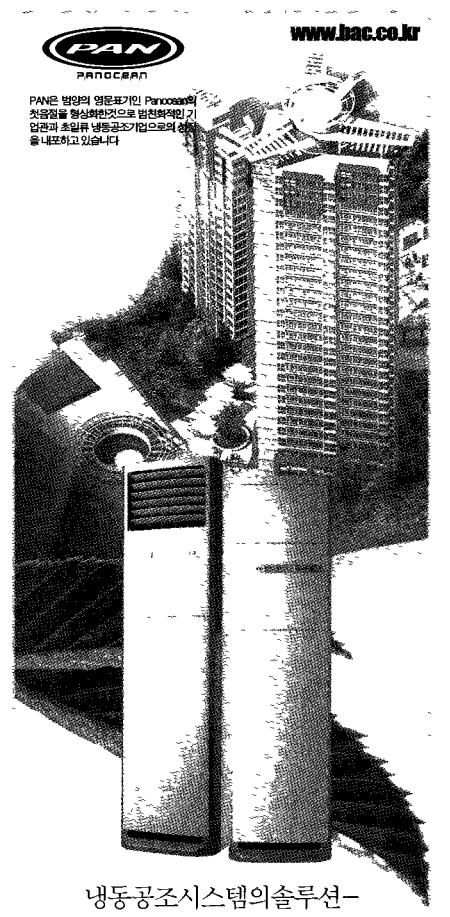
산업자원부는 윤진식(尹鎭植) 장관이 직접 지난 5일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개최되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연찬회에서 원전수거물 관리사업

을 설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원전수거물 부지확보를 위한 지역협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또한, 본격적인 지역협의를 위해 이달 9일부터는 4개 후보부지 및 관심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산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관계자들로 팀을 구성하여 정부의 지원방안을 담은 구체적인 발전비전을 제시하고 지역 주민의 생생한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유치를 희망하는 주민들의 산자부 방문도 계속되고 있는데, 지난 3일에는 경북 봉화군의 사회단체장 21명은 산자부 차관을 방문하여 원전수거물 관리센터를 유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어서, 4일에는 충남 보령시의 유치추진위원회가 역시 산자부 차관을 면담하여 원전수거물 관리센터의 유치의사를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4개 후보부지는 물론, 새롭게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도 원전수거물 관리센터 유치와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냉동공조시스템의 솔루션 - 판오션 에어컨 건물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냉동공조시스템의 솔루션
범양냉방공업주식회사
▶ 고객상담실 : (02)401-4321, (교)761-7631
♣ 콜로머서비스 : 080-022-8815-6